

일상 속 '행복' 찾는 현대인에 휴식을 선물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행복'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이 되어주는 특별한 전시회를 소개한다. 디뮤지엄의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기획전시가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안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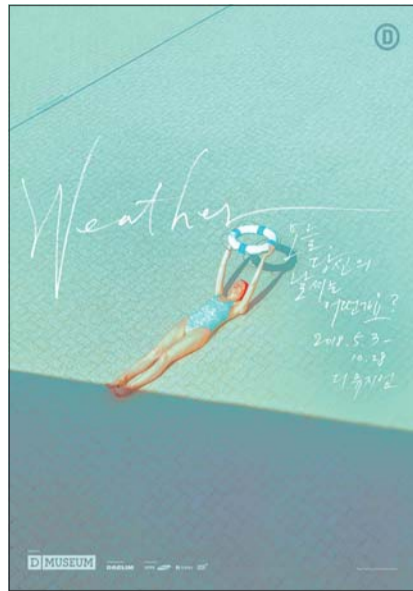
◆날씨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디뮤지엄(D MUSEUM)은 5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날씨의 다양한 요소를 사진, 영상, 사운드, 설치작품을 통해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날씨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하는 전시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를 개최한다. 전시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의 요소들을 매개로 작업해 온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의 다양한 시선이 담긴 1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독창적 미감을 보여주는 사진부터 촉각과 청각을 극대화한 설치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맞이한다.

총 세 개의 챕터 '날씨가 말을 걸다' '날씨와 대화하다' '날씨를 기억하다'로 크게 나뉘어 전개된다. 각 챕터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여섯 가지 이야기가 담겨 마치 한 권의 수필집을 읽는 기분이 들게 한다.

'날씨가 말을 걸다'에서는 날씨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들을 다채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햇살' 섹션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나른한 햇살 아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아날로그 카메라로 기록하는 마크 보스윅(Mark Borthwick)과 올리비아 비(Olivia Bee), 마틴 파(Martin Parr)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디뮤지엄 Weather 전시회

날씨에 대한 다양한 시선 담아내

세 개의 챕터로 전시돼 흡입력 높여

'눈, 비' 섹션에서는 요시노리 미즈타니(Yoshinori Mizutani)가 구현한 여름날 내리는 포근한 눈과 같은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을 감상할 수 있다. '어둠' 섹션에서는 마리나 리히터(Marina Richter)의 작업과 더불어 짙은 어둠과 아련한 밤의 서사를 탐구하는 작업들이 전시된다.

'날씨와 대화하다'에서는 시각, 촉각, 청각 기반의 작품들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며 날씨에 관한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하늘의 존재를 문득 깨닫는 순간에서 오는 설레임에 주목한 이은선의 작품을 시작으로, 인공적인 염료나 물질로서의 색이 아닌 자연현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푸르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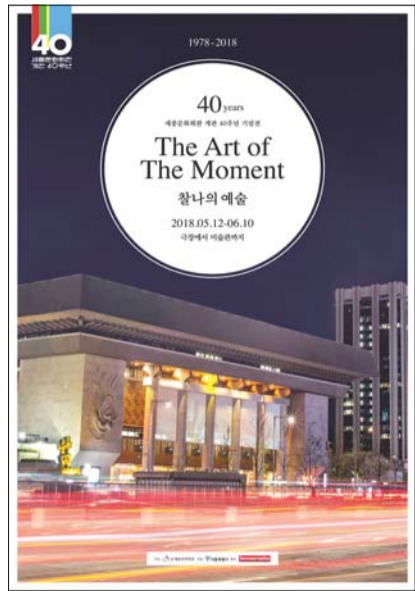
세종문화회관 40주년 특별 전시

시대별 서울의 모습 만날 수 있어

문화회관 40년 역사를 사진전으로

관한 '파랑' 섹션에 도착한다. 특정시간대의 공간과 빛, 파란 그림자 등의 분위기를 섬세하게 제시하는 마리아 스바르보바(Maria Svarbova)의 시리즈는 관객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시시각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뒤이어 구름과 안개의 시각적, 촉각적 감각을 다루는 '안개' 섹션에서는 관객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안개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사운드 디렉터 홍호선과 라운 레코드가 채집한 빗소리를 들으며 30m 길이의 전시장을 걸을 수도 있다.

'날씨를 기억하다'에서는 다섯 작가의 기억 속 날씨가 어떠한 감정과 형태로 자리 잡는지 엿볼 수 있다. 주변의 사



물들에 빛, 바람을 투영시켜 풍경을 기록하는 울리히 포글(Ulrich Vogl)의 설치부터, 야리 실로마키(Jari Silomaki), 김강희, 알렉스 웹 & 레베카 노리스 웹(Alex Webb & Rebecca Norris Webb) 부부의 사진을 페이지 넘기듯 이동하며 만날 수 있다.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를 접한 관객은 내면 어딘가에 자리한 날씨에 관한 기억과 잊고 있던 감정을 새롭게 꺼내보게 될 것이다.

◆개관 40주년 세종문화회관의 기획전시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 '세종아트페스타' 행사가 이루어지는 기간(9~15일)에는 세 개의 기획전시가 준비된다. 미술관 1,2관에서는 '유유산수_서울을 노닐다' 전시가 12일부터 진행되고, 세종홀 로비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40년을 보여주는 사진전 '찰나의 예

술-극장에서 미술관까지'가, 야외공간에는 미디어 퍼포먼스와 야외전시 '공간'의 간극 Space+Gap'을 만날 수 있다.

'유유산수_서울을 노닐다'에서는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산수와 풍경을 모았다. 작가들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약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울을 주제로 그려진 작품들이 출품된다. 소정 변관식의 '설경(둔암동풍경)', 이응노 화백의 '당인리발전소', '한강풍경', 조각가 문신의 '서대문풍경', 박노수의 소나무뒤로 보이는 '서울시가지' 등 옛 서울의 정취가 물씬 담긴 작품들을 통해 서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이 소장한 혜촌 김학수의 한양전도 8폭 병풍과 최덕후의 서울시 경관 두 점의 작품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과 작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12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다.

'찰나의 예술_극장에서 미술관까지'는 세종문화회관의 4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나는 사진전으로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재단법인 이후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중인 사진 중에 70~80년대 해외 초청 주요공연사진과 9개 예술단의 그동안의 주요 공연사진, 2002년 월드컵 등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광장의 역사사진 등 300여점의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공연 퍼포먼스의 명장면과 지난해 촛불집회의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은 함께한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모을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바늘꽃

삶의 어두운 터널도 있었기에 지금의 순간이 봄빛 세례를 받는 꽃처럼 눈물 나도록 아름답습니다

/고흥근 작

'전주국제영화제' 역대 최다 매진... 성황리 폐막

284회차 매진·관객 8만200명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다인 284회차 매진, 총 관객 수 8만200명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역대 최다 회차 매진을 기록한 작년보다도 5회차가 늘어나 총 284회차 매진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고, 총 관객수가 사상 처음으로 8만명을 돌파하여 최고치 경신과 함께 성대한 막을 내리게 됐다.

기존 최고 기록인 18회 때의 279회를 경신했음은 물론, 총 관객 수도 기존 최고 기록인 18회 때의 7만9107명을 넘어서 8만200명을 동원했다. 올해는 총 45개국에서 온 241편(장편 197편, 단편 4편)의 작품이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 5개 극장 19개관에서 상영됐다. 개막작 '아기니쿠 드래곤' (정의신), 폐막작 '개들의 섬' (웨스 앤더슨)을 비롯하여 국제경쟁 대상작 '상속녀' (마르셀로 마르티네시), 국제경쟁 작품상 '머나먼 행성' (서번 미즈라히), 아시아영화진흥기구 NE TPAC상을 수상한 '어른도감' (김인선) 등이 전 회차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전주 돔은 지난해보다 환기시설을 확충하고 냉·난방기를 증설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영화 상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운드 시

스템을 비롯해, TFS텐트 안의 울림 현상을 해결하고 공간에 비해 규모가 작았던 스크린을 확장해 보다 나은 상영환경을 조성하여 전주국제영화제의 랜드마크로 안착했다. 전주라운지와 영화의 거리 일대의 행사공간에는 기념품 숍, 먹거리존, 버스킹 존, 프리마켓 등 방문객을 위한 축제다운 콘텐츠들이 가득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모바일 예매를 도입했다. 일반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예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게다가 지난 해 고객 불편사항으로 수면 위에 울렸던 '서비스존' (물품보관, 휴대폰 충전, PC존 등)은 확대 운영되었으며,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4일
음력 : 3월 29일

수도권 날씨
26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1/26
동두천 11/27
가평 10/27
파주 10/26
양평 10/27
안성 13/22
수원 12/26
평택 10/27
백령도 11/16
서울 13/26
용인 12/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2018 첫 국제대회인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1주차 경기를 위해 13일 중국으로 떠났다. 대회는 총 5주간 열리며 한국은 15일 오후 5시에 벨기에와 대회 첫 경기를 갖는다.
- ▲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이 타율 0.384(73타수 28안타)로 좋은 타격감을 자랑하는 외야수 이형종에 대해 "빠른 공에 잘 적응하고, 도망가지 않는다. 타격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칭찬했다.
-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3연타석 삼진을 포함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올해 한 경기에서 삼진 3번을 당한 것은 세 번째다.

- ▲ 오승환(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보스턴과 홈경기에서 7회초 2사 2루에 등판해 1⅓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 2탈삼진으로 막았다. 이를 연속 보스턴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한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56에서 1.45로 낮아졌다.
- ▲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디종에서 활약 중인 권창훈이 릴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11호골을 터뜨렸다. 같은 리그앙의 투루아에서 뛰는 석준은 선발로 7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 ▲ 트레이 힐만 SK 와이번스 감독이 양행 산체스를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전에 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산체스는 12일 LG 트윈스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취소되면서 불발됐다.